



2019 차세대 페미니즘 연구-활동가 여름캠프

페미니즘

X

페미니즘

차이와 사이에 대한 이야기

2019. 8. 14 - 8. 15 (1박 2일)
@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1429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최 |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여성학회

주관 |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후원 | 서울시 성평등기금

토론문

페미니스트가 상상하는 '안전', 여성에게 할당된 '위험' 부담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1. 안전 '보장', 누구의 목소리인가?

“혈기왕성한 20대 남성만 오는데, 여성 안전 누가 책임지냐” (제주 예멘 난민 반대 그룹)

“서울시가 여성 1인 가구 250곳에 디지털 비디오 창, 문 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현관 문 보조키 등 ‘불안 해소 4종 세트’를 지원한다.”

여성 안전이 최우선이라 주장하는 집단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나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존재들이 우리를 어떻게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인가를 비판한다. 예멘 난민 사태에서 태동한 ‘여성 안전 위협론’은 마치 한국 여성에게 허용된 유일한 위치는 외부 남성들의 잠재적 성폭력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이다. 즉, 우파 정치인과 보수 개신교의 보호자로서의 우월적 위치를 만들어주기 위해 한국 여성은 이에 필요한 수동적 기호로만 사용되었다. 문제는 정작 자신들이 어떻게 한국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면서 여성을 도덕/부도덕, 순수/오염, 재생산/불임의 이분법으로 사유해 왔는지를 성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규범적 생애과정에서 벗어나 일, 학업, 경제적 생존, 자원을 탐색하는 1인 가구 여성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불안을 관리해주는 테크노-치안 관료제 또한 목소리를 높인다. 테크노-치안 가부장은 250명을 선정해 선물을 보내준다고 한다. 이로써 1인 가구 여성의 위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관의 아우라와 임무는 ‘완성’된다. 여성들 또한 자신이 낯선 이방인에게 강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혼자 사는 여성으로 쉬운 표적이 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안전 보장 담론에 자발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지난 몇 년간 1인 가구의 문제는 곧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치안으로 귀결되고, 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는 무인 택배, 밤길 귀가 동행 서비스, CCTV 설치 같은 조치를 통해서 밖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것처럼 논의되었다. 사실 이런 조치들은 꼭 1인 가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치안 불안에 대처하는 일반적 조치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대책으로 과도하게 선전될 필요는 없었다. 내가 만나 본 1인 가구 여성들은 익명의 타자들과의 피상적인 만남보다는 매우 축소되고 긴밀한 사회관계를 ‘유지’하지만 서로의 사는 방식을 존중받기를 원하는 ‘인정의 거리’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1인 가구의 태동하는 새로운 삶의 가치들을 반영될 수 있는 ‘거주 모형’의 개발이나 자원 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주거모델은 서구 및 일본에서 유행 중인 ‘코하우징’의 형태로 1인 가구와 같은 주거 독립성(침실 및 개인 공간 분리)을 유지하면서 공동부엌과 텃밭 가꾸기 등을 통한 공동 노동이 가능한 공유 공간이다. 신뢰할만한 사람들과의 일상적 관계는 불안에 대처하는 다양한 상상력을 가능하게 한다. 1인 가구 여성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사업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에 집중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세금을 내는 만큼의 혜택”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여성의 안전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관계적, 제도적으로 매우 복잡한 영역에 의해 구성된다. 그러나 현재의 여성 '안전' 담론은 관료/기술/종교가 결합한 남성지배 논리를 통해 우리의 상상력과 실천을 구속하고 있다. 이런 여성 안전 담론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여성, 아동, 청년, 노인, 빈곤계층, 성 소수자, 이주자를 번갈아 호명하며 기존의 권력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목소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들의 안전 담론은 실질적인 위협에 노출된 존재들 간의 피해자성, 자원, 순종성을 둘러싸고 벌이는 상호 경합적이며, 상호 비방적인 경쟁의 장을 만들어낸다. 한국 미디어가 '선정적인 형태'로 보도하는 여성이 경험하는 위험들은 섹슈얼리티에 집결되었고, 여성을 결속하는 감정과 정치 또한 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모든 곳에, 모든 관계에 산재된 위험의 부담은 여성들과 페미니즘에 지워지고 있다. 우리는 위험이 없는 관계와 장소를 상상할 수 없는 지경이다. 여성이 곧 '안전'이란 의미로 치환되는 상황에서 보호자를 자초하지만, 불평등을 자연 질서화한 다양한 층위의 남성 연대는 크게 위협받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한국 남성들이 '무고'와 '역차별'이란 단어에 집착하며 꿈쩍 안 하는 꼴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에게만 할당되는 '위험' 부담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페미니즘과 안전의 결속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성정치 구도에서 페미니즘은 어떻게 '안전'을 상상하고 정의할 수 있을까?

2. 불안은 우리 내부로부터 온다.

나는 페미니즘의 가장 큰 기여는 모든 착취의 대상화로부터 '자율'을 획득하고자 하는 여성의 사유와 실천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자율은 착취의 지배 바깥에서 자기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난 몇 년간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정동적으로 흥분 상태를 만들어냈다. 우리 모두 매일 터지는 가공할만한 사건들에 반응하고, 분노하고, 조급해지면서, 말하고, 시위하고, 돈을 썼다. 일상의 긴박성은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연대와 자율의 세계에서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얘기할 겨를도 없이 이슈 중심으로, (탈)소속의 빠른 이동을 통해 외연을 확장했다. 외연은 넓어졌지만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서로에게 낯선 상황을 만들어냈다. 모였다 하면 바로 할당, 즉, 일을 나누고, 임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화나 정체성을 문제 삼아, 페미니즘 내부의 적대적인 타자들 간의 전선이 구성되었다. 누군가는 TERF 이데올로기를, 어떤 이는 intersectionality를, 어떤 이는 woman-identified woman이나 political lesbianism을 경유하면서, 자신의 이론과 실천을 나름의 가장 최적의 '한국적' 페미니즘이라 주장했다.

자율과 그로부터 구성되는 안전이나 소속이라는 감정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느낌이다. 정보, 소통, 감각이나 감정을 통해 이질적인 존재였던 사람들의 몸이 움직여지고 활력을 가지고 행동을 취하고 유도하는 상황들, 그것이 우리가 구성해 낸 페미니즘 정동이다. 따라서 안전은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구성되는 감정의 회로망이다. 이 감정의 회로망은 예전처럼 후기구조주의와 주디스 버틀러를 공부함으로써 나오는, 머리를 쥐어짜면서 인지적 고통의 과정으로서의 페미니즘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구체적인 사건들에 반응하면서 생겨난 태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록 모두 서구 페미니즘에서 나온 개념을 차용했지만 '한국'이라는 복잡한 현장에 개입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열정적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페미니즘은 삼중의 실천행위라는 페미니스트 운동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가 목격하는 페미니즘의 대중화 시대의 페미니스트 진영은 '여혐'이라는 매우 한국적인 키워드를 통해 응집된 목소리를 내왔고, 켄끄러운 '결속의 압박감'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여혐에 대항해 싸우는 과정에서 페미니즘이 오랜 기간 싸워서 획득

한 젠더 개념은 한국적 우회로를 거쳐, 무조건적인 (남성) 동성에 옹호, 트랜스젠더의 희생 제의화라는 보수 기독교의 이데올로기와 묘하게 접속하고 있다.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경험하고 언어화하고 대표하고 싶은 현상들은 점차 다양해지고 이 현상들은 이론적, 인지적, 세력의 우위를 다투고, 대립하고 반목한다. 페미니스트로서 구축해 온 각자의 신념들이 비난받고, 페이스북/트위터에 속박된 몇 마디 말에 저격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위기에 빠졌다. 페미니스트들에게 할당된 '위험' 부담은 가중되며, 말, 언어를 조심하고 사회적으로, 공개적으로 망신당하지 않고, 낙인화되지 않도록 주변을 경계한다. 위험은 너무 가까이 있고, 예측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내가 믿는 세계를 거부하거나, '배신'하지 않을 폐쇄적 질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보수 기독교와 반 페미니즘 진영의 추격과 페미니즘 죽이기는 강도를 더해가고, 나 같은 시니어 페미니스트들은 '강한 적'과 '알곳은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불안하다. 미디어와 출판 시장을 장악해가는 페미니즘이란 키워드에도 불구하고, 연대의 윤리, 시위 현장에서의 스스럼없는 '말 걸기', 비꼬지 말고 말하기가 어색한 상황에서 페미니즘은 내부의 불안을 너무 많이 증폭시켰다.

여기서 페미니스트 바바라 스미스의 말을 기억해보고 싶다. "자율성과 분리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율성은 강인함에서 나오는 반면에 분리주의는 공포에서 나온다. 진정으로 자율적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 다양한 쟁점, 차이를 다룰 수 있다. 견고한 힘의 토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1) 그런 점에서 페미니즘의 대중화가 고무적이지만 그것의 토대는 여성 혐오에 대한 공포, 불안, 생사 투쟁, 열성 팬, '색출', 동질성 같은 감정들과 깊이 연루된 불안의 상황이다. 여전히 많은 페미니스트는 광장에 나와 의아하게 말한다. '한국에 페미니스트가 이리 많은데 왜 내 직장에는, 우리 학교에는, 내 일터, 내 가족 중에는 한 명도 없지?'라고. 그 수많은 실존하는/상상하는 넷 페미 동지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선 냉소, 무시, 좌절, 적대적 반응을 바로 경험하고, 결국 나밖에 없다는 고립감과 우울에 시달리는 페미들이 여전히 많다. 페미니스트들은 동지를 만나는 광장에서조차 자신을 시원하게 드러낼 수 없는 억압된 형태의 자기 보호를 해야 한다. 안전과 소속의 쾌감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현재의 온/오프라인의 광장에서 위험과 불안은 우리 내부에서 발생한다. 문화적 피로감에서 벗어나 광장에서 열린 결속의 감정을 느끼며, 다른 세계로 이동하고 싶다.

1) Smith Barbara ed. Home Girls: A Black Feminist Anthology. Rutgers University Press. 2000